

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스가랴 · 말라기 ·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 요한이서 · 요한삼서
유다서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스가랴 · 말라기 ·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 요한이서 · 요한삼서
유다서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진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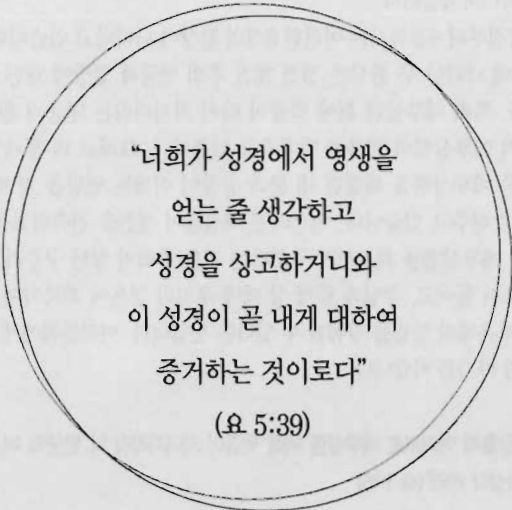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한 번 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추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총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영원을 향해 열려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호와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스가라는 학개, 말라기와 더불어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귀환 한 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케 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초반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거듭된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자, 백성들은 실의에 빠져 성전 건축의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자꾸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라는 그 같은 백성들의 나태를 책망하며 다시금 성전 건축에 매진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본문 7절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8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장에 나타난 두 환상은 성전 재건 후의 영광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다시 쳐지리라는 내용의 환상은 성전 재건 후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뿔과 공장에 대한 환상은 예루살렘을 해쳤던 네 뿔과 공장이 이제는 열방을 치며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 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홀히 여기므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속 1:1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주님의 전을 삼아주소서. ②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1장 7절부터 시작된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척량줄'은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건축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4절).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성전 건축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지지 부진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환상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커다란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재건될 성전에 대한 환상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주의 강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즉 하늘 성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이며, 최종적인 하늘 성소와 함께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임하신 현재적이며, 유기적인 성령의 전으로서의 신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종말론적인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동시에 믿는 신자들인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속 2:5)

기도 제목 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수요1,2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호수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부정한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고, 정하고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되는 모습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4절).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지도로 성전 건축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본 장에 나타나는 이상은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되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8,9절).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속 3:1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다섯 번째 환상으로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스가랴가 이 이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4절).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가 끝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성전 재건 사업을 수행할 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6절).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금 등대는 재건될 성전을,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린 자들,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14절). 천사는 계속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으며 그것을 마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9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 4:6)

기도 제목 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소서.
② 영적으로 준비된 단기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환상과 여인에 대한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 환상은 성전 건축을 태만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어떤 글대로 꿰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꿰쳐지리라"(3절).

그리고 여인에 대한 환상은 죄인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의 환상에 등장하는 '에바'는 곡식 측량에 사용되는 기구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에바로 정확하게 가루를 재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측량하시고 그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와 에바로 표현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만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속 5:4)

기도 제목 ①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덟 번째 환상으로서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은 네 마리 말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계 6:1-8). 환상에 나오는 홍마는 피의 색깔로서 대학살을 나타내며, 흑마는 슬픔과 죽음을, 백마는 승리를, 어루지고 건장한 말은 더욱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병거에 대한 환상 이후에 스가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대표들에게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9-11절).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왕과 제사장의 직임과 기능을 수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왕이요, 제사장 이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12, 13절).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진정한 구속자와 중보자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속 6:1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보자요, 구속자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며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형식적인 금식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본문은 참된 금식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원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성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인간적인 규례에 얽매어 불필요한 금식을 준수하였습니다.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식화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고 선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오월과 칠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5절).

이렇게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버린 금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참된 금식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9, 10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그 껍질만이, 그 틀만이 남아 이를 백성들이 실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메달라버리고, 화석화되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알맹이는 사라져 버리고, 껍질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속 7:1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②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친 후,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복구되어(1-8절), 그 나라가 부요할 것이며, 그들의 명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9-15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키던 슬픔과 탄식의 금식은 그치고, 즐거움의 금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18,19절).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진실과 화평의 규범을 강조하십니다(16,17절).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를 확실한 일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지금도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입니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현의 귀한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는 일들 역시 바로 이러한 계획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속 8:8)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② 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본문은 장차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9절).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것만도 말할 수 없는 겸손이요 비하인데,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으심 모두는 하나님의 겸비하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폭력이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희생을 통해 얻게 된 평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평화 역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희생할 때 찾아옵니다. 즉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될 때, 비로소 신자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인 화려함과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만족과 평화를 얻는 참된 비결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십자가의 겸손의 도입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속 9:9)

기도 제목 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② 교회주변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생활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족적 자만심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패허가 된 옛 성전과 민족적 상처 그리고 불안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그 회복의 중심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모퉁이 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모퉁이 돌은 건물의 중심축이며, 건물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결국 신약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립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키고 수고해야 할 신앙의 터전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복음 선포를 세상 끝 날까지 지키고 확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금줄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속 10:6)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와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격렬하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4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7절).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메시아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련한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스가라는 그 양들은 결국 선한 목자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분의 생애도, 죽음과 부활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 유대 민족이 흠어진 것처럼 모든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속 11:7)

기도 제목 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②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열국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힘을 주어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려는 원수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 교회에 아무런 피해를 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1-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속한 비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7,8절). 이러한 모든 자비에 대한 서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9-14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눅 6:21)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고난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난의 시간으로 보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을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소명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은, 이처럼 애통의 눈물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속 12:8)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신약시대와 관련된 약속들과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경멸과 용서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1-6절).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성결케 하신다는 약속이 뒤따릅니다(7-9절).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은 정치적 메시야가 아니라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야입니다. 힘없는 순한 양처럼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진액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자들이 흠어졌으나,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힘없이 몰락한 종교 지도자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속 13:9)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복음의 나팔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여호와가 오시는 날', 즉 그의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와 날에는 심판과 자비가 행해질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는 자비가, 교회의 대적자와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국들의 파멸이 있는 후에(1-3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그 은혜의 왕국이 설립됩니다(4-11절). 또한 예루살렘에서 적국들은 재앙을 당하며(12-15절), 열국 중에서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16-19절),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하는 영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20,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왕이신 주님을 위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옛 왕정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왕이고 그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에게는 왕을 섬기고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우리 신자들 역시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영적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속 14:11)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좇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못 참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없이 택하셨고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2-5절). 오히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없는 사랑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육신적 기대(식민지 해방)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또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결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당신의 피로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말 1:14)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두 가지 커다란 규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직의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는 그만큼 깊어졌고, 그 일로 인해 심히 경고를 받았습시다(1-9절). 다음으로 혼인 규례를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아내를 부당하게 대하며 내쫓아 버렸습니다(10-16절). 왜 이들이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것은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이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 중심의 마음으로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찌니라”(말 2:16)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순종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불신에 이어 또 다른 백성의 죄악이 지적됩니다. 즉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돌이켜 순종하면 다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7-12절).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것으로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라고 물으신 이래 타락한 인간에게 거듭 되풀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 회복되고 그 결과로 형통케 됨으로써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총의 삶을 통해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 3:7)

기도 제목 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② 모든 교구를 섬기는 일꾼들 심령에 영혼 사랑의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인 본 장은 선지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심판 날에 임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심판이 이르면 악인은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2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움과 파멸의 날이 될 것이나 의인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기쁜 날입니다. 또한 의인은 그날에 구원받고 자신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3절). 이어서 선지자는 ‘엘리아’의 출현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약속된 엘리아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즉, 엘리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엘리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회개의 권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미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막인 이 말라기서가 ‘저주’라는 말로 끝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그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

기도 제목 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염려가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려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의 일로 염려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6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길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사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근심이 아닌 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벤전 5:7)

기도 제목 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소서. ② 자원봉사에 힘쓰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3-11절).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살았을 때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12-15절). 따라서 저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사건, 즉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6-21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경계를 준 것은 2장에서 언급될 내용처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왜곡하여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써,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

기도 제목 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강단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거짓 선생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한 생활로 미혹케 하며 자신의 탐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멸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1-3절).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최후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 사례들이 인용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과 대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등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임을 보여 줍니다(4-10절). 또한 이러한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자들에게 임할 더 큰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으며(11-19절),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20-22절). 그들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를 부인하여 궁극적으로 사단의 종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 후에 죄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처음부터 죄악 속에 그냥 있었던 자들보다 더욱 처참합니다.

어느 시대애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단자들이 생겼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복음을 왜곡시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오직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음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베후 2:9)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② 선교에 방관하는 성도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깨워 줌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1,2절). 주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재림 자체를 부인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세상 끝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며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3-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1-18절).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재림을 고대했으나 성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예수 재림 날짜를 예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 자기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증거로 전락시켜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평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통상적인 인사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직접 듣고 보고 알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 메시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1-4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에 맞게 순결하고 투명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순결한 삶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씻음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5-10절).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와의 사귀는 이 세상의 어떤 교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교제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곧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화목의 제물이 되십니다(2절).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주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주를 알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것 자체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4절).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5절).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란 주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6절).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며, 이것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명령입니다(막 12:28-31).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밖에서 주장되던 목소리가 이제는 점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19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시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18절).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24절). 우리는 말씀을 배운대로 살아야 합니다(27절). 의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증거될 것입니다(29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요일 2:29)

기도 제목 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전혀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1절).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와 같은 거룩한 자녀인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2절).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3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15절).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18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22절).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명령을 행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23절).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24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짓된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2절). 말세의 때에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짓 영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인 요한사도는 자신이 대언하는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6절).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그토록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8절).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의 제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안에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13절).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14절).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17절).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요일 4:21)

기도 제목 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의 일꾼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1절).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사랑함으로써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통해서 확인 될 수 있습니다(2절). 즉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4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주기를 원합니다(13절). 이 모든 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증거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1,12).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음입니다(18절).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19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20절). 영생의 복을 얻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감사하며 주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로라고 칭하는 저자가 편지하고 있습니다(1절). 이러한 호칭은 구체적인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였던 것과 같이 개인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음성과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4절).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구하는데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와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도 그러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주변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지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명령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분명히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9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요이 :4)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통한 진리와 사랑을 깨달아 모든 거짓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심령에 십자가의 은총이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1절). 장로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이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실한 섬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5절).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3절). 가이오는 나그네 된 형제들 즉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7절). 교회는 이러한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8절).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디오드레베 라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9절). 따라서 진심으로 남을 섬길 수 없었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도 금하였습다.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것은 주의 종들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10절).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요삼 12)

기도 제목 ① 교회를 사랑하며 온 맘과 정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거짓 교사들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도를 잘 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 속하였으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4절).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속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은혜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범죄를 예로 들며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멸하심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5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6절).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범죄로 인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7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 자신들만이 볼 수 있는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꿈꾸는 사람들, 즉 몽상가들이라고도 합니다(8절). 그들은 소돔의 사람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같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영광을 훼방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화 있을찢저' (11절).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 거짓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유 :18)

기도 제목 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깨닫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한계시록만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도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기록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책이며 소망의 책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뜻을 정확히 깨닫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혼란과 두려움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의 저자와 저술장소 등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9절).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점과 함께 자신이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2절).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출 3:14). 오늘 본문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속에서 존재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8절).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소개가 어떠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17,1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계 1:8)

기도 제목 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단기 선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방관하는 성도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8월 구역 공과 초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우리 믿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며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점점 추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 공로, 노력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 점
0804	고전 3:10~16	흔들리지 않는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0811	눅 12:15~20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총을 사모하라
0818	요 4:34~38	추수의 때	추수의 때에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0825	왕상 17:8~16	드릴 것이 없나이다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드리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송.....	다같이
기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흔들리지 않는 터

| 초 점 |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 찬 송 |

찬송가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3:10-16

¹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¹¹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¹⁶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의 본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믿음의 터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터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이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다음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고전 3:16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자신의 기초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일 4:8

요일 4:10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스로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애초부터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끈질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렘 31:3 / 내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요 13:1 /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심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롬 2:23 /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롬 2:4

계 6:17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요 3:36).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확실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전 15:58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며 ☐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 안에서 ☐ 않은 줄을 앎이니라

우리의 약속들은 기껏해야 임시적이지만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

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들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 119:89

사 40:7,8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은총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총으로의 초대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 33:12 /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은 이 있도다

시 9:17 /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어 하나님을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나라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계 2:5, 3:1-2 ; 호 4:17 ; 히 12:17의 말씀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① 회개하라 ② 교만하라 ③ 적당히 하라

하나님은 나라와 교회, 개인을 향해 주님께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며 건축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엡 3:17 / □□ 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가 굳어져서

골 1:23 / 만일 너희가 □□에 거하고 □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
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대해 단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자신의 의견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터 위에 살게 하소서.
2.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2과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

| 초 점 |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총을 사모하라

| 찬 송 |

찬송가 102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 본 문 | 누가복음 12:15-20

⁽¹⁵⁾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¹⁶⁾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²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현재 우리의 문화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잃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과 천국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함을 믿어야 합니다.

눅 12:15

하나님께서서는 본문에 나온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소출이 풍성했지만

이 부자는 단지 이 땅에서의 부만 계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계산에서 천국은 빠져있었습니다.

눅 12:16 /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부자의 밭은 최고의 수확을 냈습니다. 그의 투자는 성공했고 이것은 그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참평안은 없었습니다. 소출은 풍성했지만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특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시험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요 14:27).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롬 8:38,39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준비들

부자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눅 12:17-19

그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 16:24

부자가 준비한 모든 것과 그가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불변합니다.

요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어리석은 부자가 시간을 들여 공들인 모든 노력의 결과는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의 소망은 세상이라는 지평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 부자와 하나님과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부자 : _____ (눅 12:19)

하나님 : _____ (눅 12:20)

사실 이 부자는 노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생각만 했을 뿐, 영원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쌓아놓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6:26 / 사람이 만일 온 를 얻고도 제 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 3:36 /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있고 이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의 노후 대책만을 세웁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자입니다.

십자가로 路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안정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슬픈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눅 12:21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라벨이 붙어 있습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골 2:3 /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가 감춰져 있느니라

십자가를 통한 은총을 진실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영원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참 신자가 되게 하소서
2. 십자가를 통한 은총을 진실로 사모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전하게 하소서

3과 추수의 때

| 초 점 |

추수의 때에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 찬 송 |

찬송가 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 본 문 | 요한복음 4:34-38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 ³⁷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³⁸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은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요 4:39

※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들을 함께 지내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 4:42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추수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동네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 사마리아 수가성에 복음이 전해진 경로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예수님 → 사마리아 → 수가성 □□ →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에 비천했던 한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가 살던 동네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추수기에 이르러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을 거두신 것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4:35

세상은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추수할 때임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단지 짧은 기간에 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고후 6:2

※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써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추수의 때!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샀을 주십니다.

요 4:36

현재에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샀을 받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 22:12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대로 주리라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좇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 25:41 / 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에 들어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추수 때에 여러분이 거둬들인 것을 보시며 수고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지금 곧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25:21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요 4:37,38

넘치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밭에 나가 일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곡식들이 모두 썩고 만다면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옵니다. 그러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눅 10:2 /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주소서 하라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충성스런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路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영혼이 중요합니다.

마 25:34

마 25:46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추수일 가운데서 쉬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리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지금이 추수의 때임을 깨닫게 하소서.
2. 추수의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진실로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전하게 하소서.

4과 드릴 것이 없나이다

| 초 점 |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드리라

| 찬 송 |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439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 본 문 | 열왕기상 17:8-16

⁽⁸⁾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⁹⁾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¹⁵⁾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¹⁶⁾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비를 멈춰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들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한 이방 여인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절망에 빠져 움푹달싹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7:9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을 찾아 오셨고 그녀에게 당신의 종을 공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 위암옥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사람들을 보내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 과부를 찾아 온 엘리야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왕상 17:10,11)

과부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지 한 끼 먹을 양식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왕상 17:12 /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 엿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진실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왕상 17:13

그녀는 엘리야가 명한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두려움은 항상 조용히 잠재해 있습니다(창 3:10).

※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믿음 ② 소망 ③ 죄

하나님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마 6:33 / 너희는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은 이 여인의 가정에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왕상 17:14

왕상 17:16

그녀는 한 번도 엘리야를 만났거나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엘리야를 공경했습니다.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축복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 이방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실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히 12:2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녀는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비어있는 항아리를 보면서 그녀가 가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 마태복음 21:21과 히브리서 11:21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뭄에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손님까지 대접했던 이 여인의 행동은 미친 짓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감사의 찬송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눅 18:43 /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하니라

십자가로 路

세상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애 3: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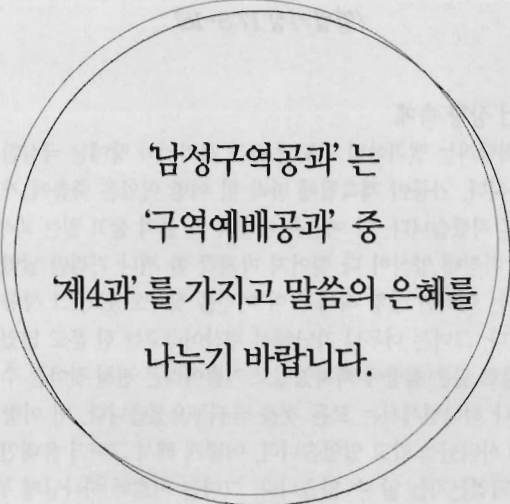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삶 때문에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계 2:10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있게 하소서.
2.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드릴 것이 없나이다

⁽⁸⁾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⁹⁾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

⁽¹⁵⁾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¹⁶⁾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8-16)

절망뿐인 상황 속에

비를 멈춰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도 따라 사마리아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들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한 이방 여인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져 마지막 한 끼니 거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재산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었고 기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절망에 빠져 옹작달작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요리할 나뭇가지를 줌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9절).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을

찾아 오셨고 그녀에게 당신의 종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에서 나가시오.” 이 과부는 정말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에게 먼저 물 한 잔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려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10절). 가뭄으로 물이 귀한 때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을 ‘조금’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 오라”(11절). 이제 일이 더 곤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요구 사항은 너무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단지 한 끼 먹을 양식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12절).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진실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13절). 이 요구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참 신자였을까요? 그녀

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두려움은 항상 조용히 잠재해 있습니다. 타락한 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 가족, 사업, 돈, 자녀 교육 등 우리는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논쟁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녀 자신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33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줄 수도 있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14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녀의 손을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밀가루와 기름을 취해서 떡을 만들 수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엘리야를 만났거나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축복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 이방 여인에게에는 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이 남아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엘리야에게 솔직히 알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녀에게는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비어있는 항아리를 보면서 그녀가 가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가뭄에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손님까지 거두다니, 틀림없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전형입니다. 만일 절망적인 문제들로 가득한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애가 3:22,23은 말합니다. “여호와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는 이 여인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러한 노래를 불렀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8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황진섭(1-7일), 이정훈(8-15일), 김태석(16-23일), 김성훈(24-31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